

01 교회소식

잊지 못할 부활절

감사와 기쁨이 넘친 특별한 부활절을 맞아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해외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02 생명의 말씀_ 선 시리즈 9

사도 바울의 선(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가 변치 않았다.

03 기획특집

'내 생물'의 비밀

요한계시록, 에스겔 등에 기록된 '내 생물'은 과연 어떤 모양을 하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다.

04 화보

'주는 그리스도' 부활절 공연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 부활, 그리고 승천... 2013년 부활절 공연 '주는 그리스도'의 감동적인 장면을 화보로 만나본다.

만민뉴스

제576호 2013년 4월 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기독교 3대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을 맞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활주일 감사예배, 기념 공연과 성찬예식(사진 ①, ②)을 통해 사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으며, 해외 목회자와 성도들도 방문해 영생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나눴다(사진 ③, ④).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부활절을 맞는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도 더해진다. 지난 3월 31일, 부활주일 저녁예배시 열린 성찬예식에는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전 세계 1만여 자·협력교회가 동참해 더욱 뜻깊은 부활절이 됐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하의 설교 후, 성찬예식에 앞서 근본의 소리를 발하는 권능의 기도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중보기도를 해 주었다. 그 결과 독일, 영국, 러시아, 페루, 일본, 중국 등 국내외에서 참석한 주의 종과 레위족은 물론, 전 성도가 급속한 영의 흐름을 탈 수 있게 됐다.

독일 라파엘 론지 양가 목사(바드 크루나츠 예수 선교 침례교회 담임)와 무디디 문구디아 카방구 목사(호렘교회 담임)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를 직접 목도하고 독일과 유럽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게 됐다."며 "이재록 목사님의 사역이 이 시대에 신앙인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4 이재록 목사 초청 독일 연합대성회'에 참석했던 양가 목사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독일에 베푸신 축복 성회였다고 고백한다."며 "이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성

장하고 교회들이 힘을 받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카방구 목사는 부활절 공연에 대해 "매우 훌륭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사실처럼 잘 보여주었다.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에서는 마음이 찢기는 듯 아팠다."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31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만나 현지 사역을 위해 기도받았다.

한편, 영국 음폴로고마 선교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부활절 공연에 대해 "예수님의 걸음을 찢는 모습,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애통하는 모습 등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재현하니 매우 감동적이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스웨덴에서 자녀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한 모린 라스폭 성도와 영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율리아 고레로바 성도도 부활절을 통한 영적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 밖에도 전 극동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싱가포르 황핑핑 선교사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시공을 초월한 사진기도로 우울증을 치료받은 대만 웨이이란 집사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 행복한 부활절을 보냈다.

이스라엘 크리스탈포럼 주최 '부부·청소년 수련회'

'부부·청소년 수련회'가 이스라엘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 주최로 지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이스라엘 북부 나하리아 베이트 케이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통해 영적인 충만함을 얻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도 바울의 선 (1)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9-10)

신약 시대 최고의 사도로 손꼽히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독실한 유대교 신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지요. 그래서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옥에 가두기에 앞장섰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에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뜻에 찬성하며 그들의 옷을 지키기까지 했지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세계 선교의 기반을 마련한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원수를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이뤄 가는 곳마다 권능의 역사를 크게 베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도 바울의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1. 옳은 것을 깨우치면 변개치 않는 중심

사도 바울은 의가 아주 강한 사람으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의로써 상대를 누르기 좋아하고, 변론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

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이 도무지 자기 의에는 맞지 않았지요. 그냥 묵인하고 지나칠 수 없었던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기 의가 강하지만 한 번 옳은 것을 깨우치면 변개치 않는 중심임을 아셨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의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에까지 주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원정을 가던 바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변화되기 전 바울의 이름인 사울을 부르며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셨지요.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 섭리를 알게 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선택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된 것을 깨달은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을 의심하며 여전히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22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했습니다. 이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2. 한번 받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변치 않는 마음

사도 바울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자 자신이 마치 죄인 중에 과수처럼 여겨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한 사명까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감사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깊고 진한 감사의 고백이 나왔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1:23~27에 잘 나옵니다.

“...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 데 일 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며 고난을 받았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서도 서러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깊은 감옥이나 파선의 위험에도 문제되지 않았지요. 오히려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채찍질로 여기고 많은 상급을 쌓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중심에서 감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처음 믿은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바울의 고백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산다 하지만 바울과 같은 고난이 허락될 때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도 바울의 고난에 비하면 고난이라고 할 수 없는 작은 어려움에도 이내 절망하고 낙심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모든 것을 드리기까지 헌신했는데 원하는 대로 축복이 임하지 않을 때 혹여 마음이 슬퍼지지는 않았는지요?

또는 스스로 실망해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많은 분야에서 포기해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만일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분에게 바울과 같은 고난이 임한다면 과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종국에는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에도 오직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었지요.

‘이제 내 생애가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하고 착잡한 마음이나 회한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한 경직된 심정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너무도 보고 싶었던 주님을 이제 곧 뵈울 수 있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 앞에서 긴장하기 마련이지만 사도 바울은 소망으로 가득해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받을 때에도, 심지어 생명을 잃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참으로 끈고 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물론이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더욱 온전케 하심에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해 잠시 받는 고난을 장차 천국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으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음껏 연단하실 수 있었고, 결국 바울은 큰 권능을 나타내며 무수한 영혼을 구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사가 될 수 있었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변치 아니하며, 생명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공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성경에 기록된 '네 생물'을 아시나요?

네 생물이 감찰하는 분야

하나님 형상을 얼마나 닮았는가?

얼굴이 사람 같은 인자 생물은 각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얼마나 닮았는지를 감찰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살핀다. 이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그 마음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마 15:18). 즉 사람의 말과 행실을 살피서 '하나님 형상을 얼마나 닮았는가' 측정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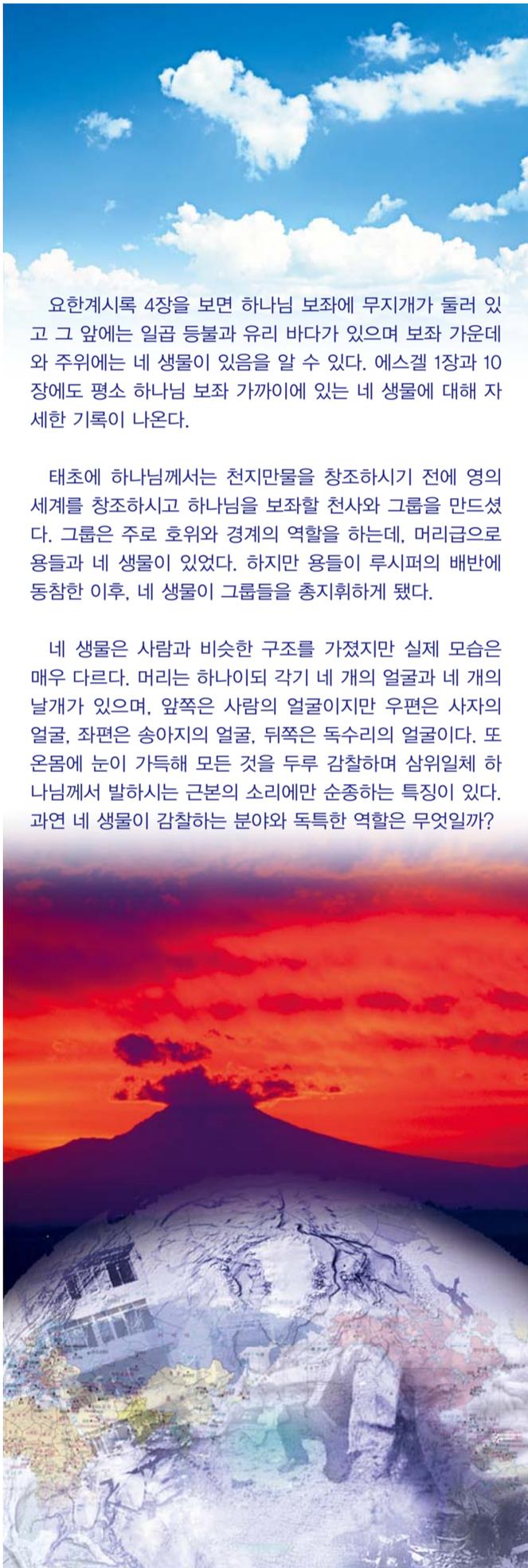
얼굴이 사자 같은 생물은 하나님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얼마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지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위협받거나 핍박을 받을 때 굴복하는지 안 하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지 아니면 두려워서 물러서는지 등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심비에 새기며 마음에 이뤘는가?

얼굴이 독수리 같은 생물은 한 치 오차 없이 각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 독수리가 시력이 좋아 멀리 있는 작은 먹이감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처럼 독수리 생물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까지 정확하게 분별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심비에 새기고 마음에 이뤘는가를 감찰하는 것이다. 심비에 새기며 마음에 이루는 좋은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충성하는가?

얼굴이 송아지 같은 생물은 각 사람의 충성 분야를 감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지, 아니면 힘들게 억지로 감당하는지 충성도를 정확하게 살피는 것이다. 또한 얼마나 중심으로 기도하는지도 감찰한다. 불같은 기도로 꾸준히 마음 밭을 개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충성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고 그 앞에는 일곱 등불과 유리 바다가 있으며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스겔 1장과 10장에도 평소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 네 생물에 대해 자세한 기록이 나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보좌할 천사와 그룹을 만드셨다. 그룹은 주로 호위와 경계의 역할을 하는데, 머리급으로 용들과 네 생물이 있었다. 하지만 용들이 루시퍼의 배반에 동참한 이후, 네 생물이 그룹들을 총지휘하게 됐다.

네 생물은 사람과 비슷한 구조를 가졌지만 실제 모습은 매우 다르다. 머리는 하나이되 각기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가 있으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지만 우편은 사자의 얼굴, 좌편은 송아지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다. 또 온몸에 눈이 가득해 모든 것을 두루 감찰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발하시는 근본의 소리에만 순종하는 특징이 있다. 과연 네 생물이 감찰하는 분야와 독특한 역할은 무엇일까?

네 생물의 독특한 역할

인자 생물 그룹들을 명해 움직이게 하는 권세

영의 세계에 있는 그룹의 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네 생물은 무수한 그룹의 머리로서 각각의 그룹이 곳곳에서 호위와 경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휘한다. 이때 인자 생물이 그룹들에게 명령을 내려 움직이게 한다.

사자 생물 재앙을 주관하는 권세

요한계시록을 보면 장차 7년 환난이 임할 때에도 네 생물이 직접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계 6:1; 15:7). 이때 사자 생물이 한 번 입을 열면 천둥 같은 소리가 나며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불의 재앙(창 19:24), 모세를 대적한 고라 일당에 대한 심판(민 16:32~33)을 비롯, 지진과 화산폭발뿐 아니라 질병의 재앙도 주관한다(대상 21:14).

독수리 생물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우리가 사는 첫째 하늘 곳곳에는 둘째 하늘로 통하는 문들이 있다. 독수리 생물이 힘찬 날개짓을 하면 이러한 하늘 문들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 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행 7:55)과 또 노아 홍수 때 에덴의 깊은 샘들이 터져 지구로 쏟아지고(창 7:11) 다시 돌아간 것도 바로 독수리 생물에 의한 것이다.

송아지 생물 천기와 기후를 주관하는 권세

송아지 생물은 구름을 모으거나 흩트리는 일, 비나 눈, 우박을 내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일, 태풍을 일으키거나 소멸시키는 일, 천둥 번개가 치게 하는 일 등을 주관한다. 따라서 송아지 생물이 움직이면 자연재해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인이 선한 목적으로 기후 조절을 위해 간구할 때 가능하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수요프로그램 안내

2013.4.7~4.13

4

April

www.gcntv.org

이제부터 모세의 생명의 말씀

- 위로부터 난 지혜 2-6
- 믿음의 분량 1-4
- 3차 영혼육 3-7
- 창세기 강해 54-58
- 천국 18-22
- 나를 누구라 하느냐

GCN TV '설교'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1-4 (이수진 목사)
- 뫼뫼이 (이미영 목사)
-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정준영 형제)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13-14 (정규영 목사)
- 일곱교회 1-3 (빈금선 권사)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플레이즈(2) 7-11
- 찬양과 경배 (3) 22-24, 27-30

해외성회 시리즈

-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1
- 에스토니아 연합성회 종합편

간증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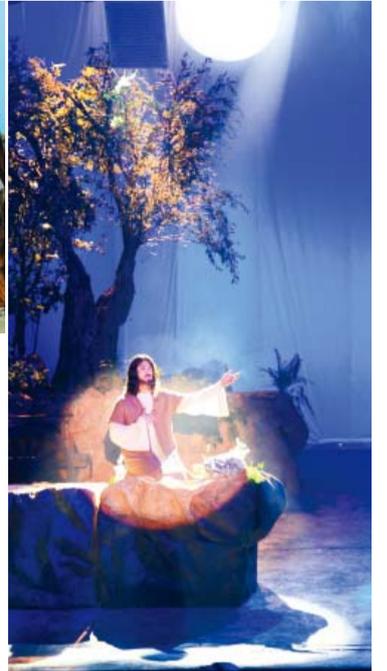
- 크리스천 투데이 2, 4, 29, 37, 47, 48
- GCN 간증 스페셜 9-12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2013 부활절 기념 공연



1

예수님의 사역

은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서는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각색 질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주는 그리스도”

지난 3월 29일 금요일야에배 2부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부활절 공연이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 부활과 승천을 성경 그대로 재현됨으로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더해지는 시간이었다. 공연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전개됐다. 특히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곡(신 31:19, 22)들로 구성된 음악은

성가대의 찬양과 닷시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큰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관객들이 먼 거리에서도 실감나게 볼 수 있도록 5도 경사지게 설계한 특별 무대로 극적 감동을 더해 주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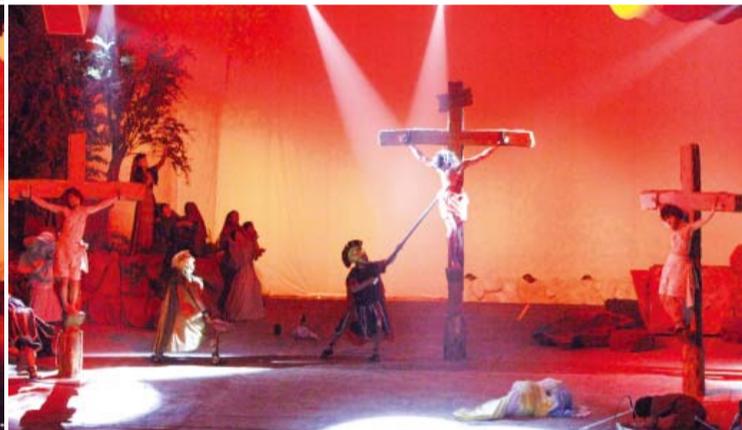
주님의 부활과 승천

주님께서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신 후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므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2

예수님의 고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는 공의의 대가를 치르셨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5202-5547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교성동 1가 104-9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청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월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2-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점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7487-171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கட산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증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